

아주대의료원소식

2003

10

통권 제 105호 / 발행일 2003. 10. 1 / 발행인 겸 편집인 김孝哲 / 발행처 아주대의료원 홍보팀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 (442-721) 전 화 (031) 219-5114

· 목 차 ·

- 2 제6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취임사
신뢰받는 의료원,
의료원의 실질적인 세계화를
이루겠습니다
- 4 포커스
아주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대규모 국제심포지움 개최
- 6 의학 리포트
홀미움-키토산 복합체,
양성 뇌종양 치료에 탁월
- 7 선인재 칼럼
비전 있는 나라를 꿈꾸며
- 8 진료교실
간염없는 세상을 위하여
- 10 내가 꿈꾸는 의료인
내일도 굿모닝!
- 11 있을 수 없는 환자
건강한가? 신 일병
- 12 병동클릭 신생아실 및 NICU
- 14 첨단의학의 현장 - 내시경 II
폐암 진단의 필수, 기관지경
- 15 나의 연구 나의 테마
면역질환의 원인인 단백질 규명
- 16 음식 속 건강 과일과 채소, 토마토
- 17 일본 건강진단센터 견문기
日本 고급 건강진단의 진수를 맛보다!
- 18 장기기증은 사랑입니다
간경화의 근본 치료
- 19 AMC NEWS
- 24 개원 9주년 기념행사 화보
- 28 건강 Q&A
- 심장 과사
- 29 유명인과 질병 백반증
- 30 나의 건강상식은? 눈에 관한 상식
- 31 협력병원 탐방 박애병원
- 32 의료원발전 후원내역
- 34 전문클리닉 소식
- 35 진료시간표

제6대 김효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



아주대학교는 9월25일자로 제6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김효철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암센터 소장, 내과부장, 의과대학장 등 역임하면서 오늘날 의료원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김효철 의료원장은 혈액학 전문의답게 아주대의료원의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의료원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9월29일 열린 취임식에서 신임 김효철 의료원장은 『시대에 부합하는 의학 교육, 연구, 진료가 이루어지는 세계속의 아주대의료원으로 도약하자』면서, 『이 꿈을 이루는데 의료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아주대학교 오명 총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아주대의료원을 충실히 이끌어 준 전임 강신영 의료원장이 아주대학교 발전에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시길 것』을 부탁하면서, 『교직원 모두가 아주대의료원의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신임 김효철 의료원장을 믿고 따라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취임사 : 2~3면 참조>



신뢰받는 의료원, 의료원의 실질적인 세계화를 이루 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원석 이사장님, 오명 총장님, 원내외 여러 선생님, 그리고 친애하는 의료원 교직원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직책을 임명받은 지난 9월 25일은 제 일생에서 가장 어깨가 무겁고 긴장이 됐던 날입니다. 과거 여러 보직자들이 쌓아 온 업적에 내가 무엇을 더 보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 의료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귀국한지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환경 모두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국가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IMF, 대우사태, 의약분업등 우리를 둘러싼 내외 환경도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

다. 이렇게 안팎으로 불어오는 찬바람을 굳게 견뎌내며 아주대의료원은 그간 1,000 여명에 가까운 의사·간호사·의학 석박사를 교육 배출하였고 1,033 병상의 규모에 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대학병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2,400명의 교직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주대의료원이 내년 봄이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의료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직원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참으면서 꾸준히 정진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전임 보직자들이 헌신한 결과이고 여기 계신 모든 교직원 여러분의 팔과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는 세계화(Globalization) 입니다. 의료에 있어서도 세계화는 하나의 숙명처럼 다가옵니다. 교수들의 영어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얼마나 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대학의 연구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고, 외국의 유명병원과 얼마나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대학병원의 세계화를 가능케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존스홉킨스병원이 한국에 분원을 설치하는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거론되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저는 세계화 문제와 관련하여 추상적인 선언보다 실질적인 바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우선 국내에서 확실하게 신뢰받는 의료원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최신의 의료시설과 첨단 의료장비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있는 의사와 전공의, 환자를 잘 보살피는 간호사, 병원 살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유능한 직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아주대의료원을 보다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기존 구성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도록 전문성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우선적으로 교직원의 처우, 복리증진, 자기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연구 경쟁을 지원하는 일에도 크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21세기의 국가나 대학의 생존은

IT와 BT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대학교는 오명 총장님의 IT에 대한 선구적인 아이디어를 통하여 IT사업들이 교내, 도내, 그리고 국제적인 Level에서 수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도 의학연구가 실질적인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BT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BT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몇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Project의 주제가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기초 및 임상과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통적인 주제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Project에 대해 초기투자가 과감하게 있어야 하고, Project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Leader의 영입이 필수적입니다. 몇가지 Project 중 줄기세포의 치료적 개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oject가 선정되면 우리 의료원 뿐만 아니라 본교의 공대 및 자연대학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모색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다 나은 연구활동을 구비하기 위하여 빠른시일내에 연구동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위한, 의학연구를 위한 바이오테크가 우리 의료원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서 학장님은 물론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깊이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을 위시한 본교의 보직 교수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과대학만이 아닌 아주대학교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교직원 여러분,

우리 의료원에는 40여종류가 넘는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개개인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대의료원이라는 직장생활 속에서 느끼는 보람은 우리가 다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대의료원의 본질적인 존재가치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게끔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아주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아주대병원을 믿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학생 중심의 사고, 환자 중심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아주대의료원이 우리사회가 필요로하는 능력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의료인을 배출시키는 의과대학으로서, 병을 잘 고치는 인간존중의 병원으로서 거듭날 때 우리는 진정한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를 향한 원대한 꿈이든, 주변을 세세히 살피는 작은 꿈이든 저는 희망을 갈구하는 모든 사람의 선한 꿈을 존중합니다. 아주대의료원도 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가 알아주는 의료원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주대의료원은 한국 의료에 있어서 하나의 경이로운 역사입니다. 신생 의과대학으로서, 진료를 시작한지 10년도 안된 병원으로서, 아주대의료원만큼 균형있게 성장한 전례가 국내외에 흔치 않습니다. 지금의 아주대의료원이 있기까지는 김효규 前 총장님과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의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지혜와 의지, 이성낙 前 의료원장님의 미래를 내다보는 추진력, 이호영 前 총장님, 서정호, 강신영 前 의료원장님의 헌신적인 열정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제 아주대의료원은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이 시대에 부합하는 의학교육, 연구, 진료가 이루어지는 세계속의 아주대의료원으로의 도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는데 의료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김영수 학장님, 홍창호 병원장님, 소의영 실장님과 주임교수님 이하 여러 부서장님과 교직원 모두가 도와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중책에 임명하여 주신 오명 총장님이하 교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그 뜻을 깊이 헤아려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대규모 국제심포지움 개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아주대학교 개교 30주년, 의과대학 개교 15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9월27일 토요일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대회의실, 국제회의실)에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아주대학교 개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인 만큼, 의료원이 이제껏 개최했던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준비됐으며, 이날 손학규 경기도지사, 오명 총장, 김효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비롯하여 의학자, 학생, 관계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세계적인 의학자가 연자로 초청되어 자리를 더욱 빛냈으며, 이들의 연구발표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21세기 화두가 되고 있는 노령인구의 증가에 대비한 「신경질환의 발생기전 치료법」과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위암의 발생기전과 새로운 치료법」등 신경과학 분야와 위암분야에서 각각 의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동시에 개최됐다.

이날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신경과학분야 심포지움에서는 신경영양인자와 그의 수용체연구로 유명한 윌리엄 모블에이(미국 스탠포드대학)의 기초강연을 비롯하여 알츠하이머병 연구의 세계적인 대가인 에드워드 쿠(UC 샌디에고) 박사와 마코토 히쿠치 박사(일본 리켄연구소), 신경세포의 발생과 분화연구의 대가 카츠히로 이케나카 박사(오카자키 국립연구소), 유전적 운동신경세포질환 분야의 캐네스 피시백(NIH) 등 신경과학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대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한, 위암 심포지움에서는 영국 애버딘의대 엘 오마르 박사, 일본 구마모토대 히데유키사야 교수, 일본 히로시마대 아이치 타하라 교수, 일본 사이타마 암연구소 마사미 수가누마 교수 등이 전세계 인구의 50%가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감염 후 위암발생이 생기는 유전 및 환경적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위암 발생기전에 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연구결과들을 발표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암 치료센터인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의 고든 밀스 박사는 각종 항암치료제들을 환자 개인의 유전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맞춤의학에 관한 기초강연을 발표해 큰 관심을 끌었다.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간의 뇌신경세포를 배양하는 등 뇌 신경분야의 대가인 아주의대 김승업 석좌교수를 비롯하여 아주의대 서해영, 조은혜, 광병주, 묵인희 교수, 울산의대 고재영 교수 등이 신경과학 분야에서, 위암분야에서는 아주의대 함기백, 이재호, 한상욱 교수, 서울의대 방영주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를 주도한 조직위원장인 김영수 아주의대 학장은 「이번 심포지움은 신경질환과 위암 분야에 있어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국내외 세계적인 의학자들을 비롯하여 500명이 넘는 의학자, 학생 등이 참여하여 최신의 연구와 지견을 나눈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홀미움-키토산 복합체, 남성 뇌종양 치료에 탁월

홀미움-키토산 복합체가 남성 뇌종양 치료에도 크게 효과가 있음이 임상 연구결과 입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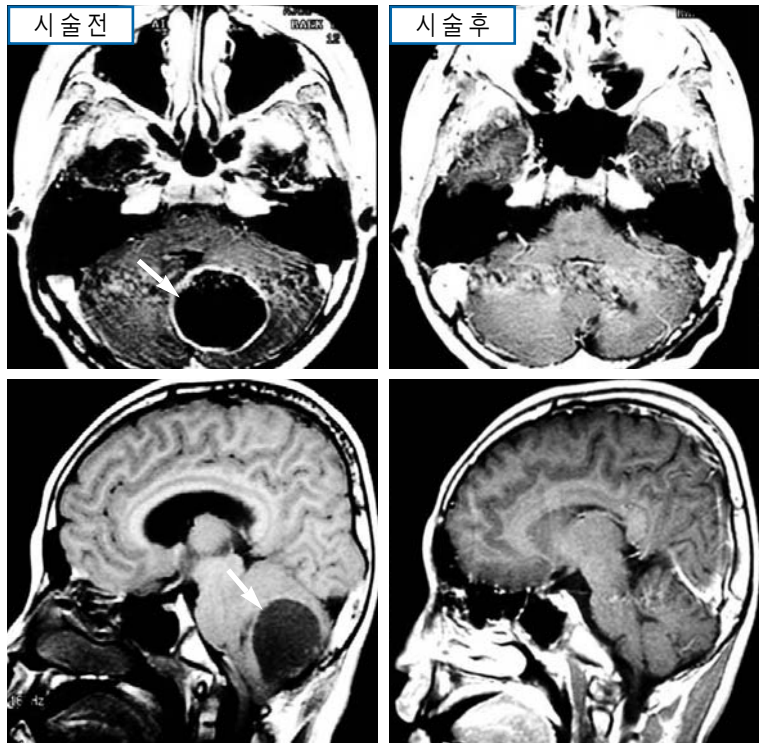
신경외과 조경기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6년간 20명의 남성 뇌종양 환자에게 홀미움-키토산 동위원소 복합체(166Ho-CHICO)를 바늘로 직접 주사한 후, 평균 33개월동안 추적관찰한 결과, 수술전 4~5cm였던 종양이 대부분 1cm 이하로 줄었다고 한다. 특히 이들 중 양성 종양환자 12명 중 6명은 완전 소실되고, 나머지 6명은 크기가 1cm 미만으로 줄어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게 되었으며, 뇌압 등 악성 남성종양도 모두 크기가 1~2cm로 줄어 뇌종양으로 인한 증상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번에 치료를 받은 환자 20명은 양성종양 12명, 악성종양(뇌암) 6명, 교모세포종 2명이었으며, 뇌종양 크기는 최대 7cm, 평균 4~5cm였다.

이번 새로운 치료법의 가장 큰 장점은 주사로 뇌 속 뇌종양에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머리를 열어 제거하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에 동위원소 치료로 사용되고 있는 동위원소 P32는 반감기(우리 신체에 동위원소가 남아 있는 기간)가 15일

이고 전량 수입해야 하는 반면, 원자력연구소 박경배 박사가 자체 개발한 홀미움 166은 반감기가 하루 정도(27시간)로 안전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특히, 홀미움 166과 섞어 주입하는 키토산은 우리 몸 체액과 만나 겔(gel) 상태로 변하면서 홀미움 166이 남성 뇌종양 벽에 골고루 붙어 있도록 함으로써 주변 정상조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조직의 손상을 막음은 물론 치료효과를 더욱 극대화하였다고 한다.

조경기 교수는 『동위원소, 홀미움 166이 남성 뇌종양의 크기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후, 현재 사업에서 한



▲ 홀미움-키토산 복합체 치료(양성종양, 12세, 남) 78개월후 소뇌에 발생한 6cm 되는 남성 뇌종양(화살표)이 완전 소멸됐다.

히 나타나고 있는 고형성 뇌종양을 대상으로 한 쥐의 동물실험에서도 치료효과가 탁월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홀미움-키토산 복합체 치료방법이 뇌종양 전체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성 뇌종양은 고형성 뇌종양과는 달리 종양 속이 액체 상태로 흔히 물혹이라 불리는 종양으로 종양내벽에서 분비물이 계속 분비되는 특징 때문에 물혹이 점점 커지면 뇌를 압박하게 되어 결국 뇌압을 높여 사망 혹은 치명적인 신체장애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다. 남성 뇌종양은 10만명 당 16명꼴로 나타나고 있는 뇌종양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위 내용은 9월8일 KBS 뉴스광장, 9월2일 YTN 뉴스, i-TV 뉴스 등에 방영되었으며, 한국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에 게재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비전있는 나라를 바라며

내가 1999년 1년간 미국에 연수할 때의 일이다. 미국에서는 자동차보험 뿐 아니라(중고차임에도 보험료를 1년에 200만 원 내외를 냈다) 의료보험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다. 1년간의 의료보험비용으로 약 770만원을 지출하였다(다행히 초청교수께서 내주셨음). 병원에 가는 구조도 달라서 비용을 절약하려면 몸이 아파도 바로 큰 병원 전문과로 가서는 안 되고, 일반의사에게 먼저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병원 전문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감기 같은 경우도 병원진료 예약을 하면 진료예약일까지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의사를 만나기 전에 감기가 낫는다」는 우스개 소리를 듣기도 했다. 한번은 동료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하고 온 후 빨리 진료가 되지 않음에 불평을 했다. 응급실에선 사진 등을 찍은 후에는 응급으로 무엇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는지, 며칠 뒤에 외래로 오라고 진료예약을 해주었다고 한다. 아마 우리나라였으면 응급실이 떠나갈 정도로 시끄러웠으리라 짐작이 된다.

한편 우리는 어떤가. 「1시간 이상 대기, 3~5분 진료」, 언제나 나오는 얘기다. 미국에서 내과과 개업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미국에서는 하루에 30명 이상을 진료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사람 진료하는데 20~30분이 걸리는 미국에서의 진료와 우리처럼 한 사람 진료하는데 평균 3~5분인 진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에서는 하루에 10~20명 내외의 환자를 보아도 병원이 운영되지만, 한국의 현실은 병원경영을 위해서는 하루에 10명 내외의 환자를 진료하면 거의 파리 날리는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망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할 수 없이 하루에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하니 환자당 진료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

요즘에는 대학병원에서도 병원 수익을 위하여 장례식장, 편의점, 음식점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여기서 얻는 이익이 투자비용 대비 수익은 말할 것도 없고 병원 경영에서 효자 노릇을 한다고 한다. 미국에 있을 때 병원시설 내에 편의점, 음식점이 우리나라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지는 못한 것 같고 더욱이 이러한 편의시설이 병원수익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

선인(善仁)이란 노자 도덕경에서 인용한 말로 인을 잘 베푼다는 뜻이다. 의과대학 지하 카페테리아에 있는 선인재(善仁齋)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생을 논하고 즐기는 장소를 의미한다.

환자를 돌보는 것이 목적인 병원에서 본래의 목적으로는 돈을 벌지 못하고, 다른 일을 통하여 병원전체의 이익이 창출되고 그 라이만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사람들은 TV 보도에서 나오는 3분 진료에 분통을 터뜨린다. 이 TV 뉴스는 10년 전에도 있었으며 10년이 지난 요즘에도 반복이 된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그 이유는 자명한 것이다. 낮은 수가에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장례식장, 음식점 등에서 수입이 늘고, 비보험 진료를 통한 수입으로 병원의 경영이 잘되고 있다고 하면서 절대로 수가는 올릴 수 없다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는 10년 전이나 현재나 3분 진료에 분통을 터뜨린다. 문제의 핵심을 피한 뽕질식 처방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앞으로도 똑같이 1시간 대기 3분 진료를 되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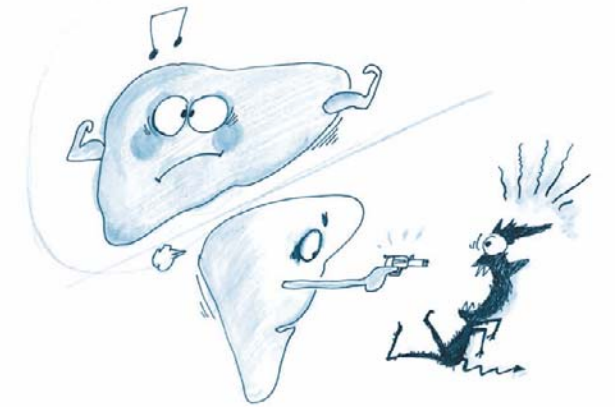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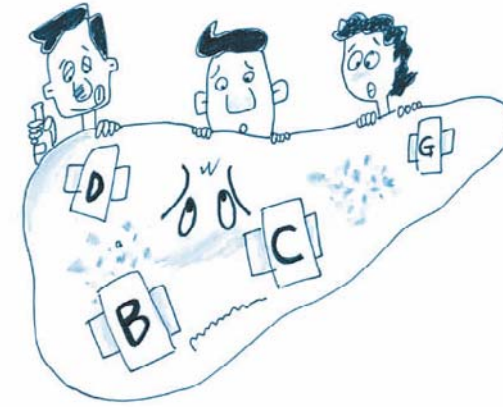
최근 심한 수해가 있었다. 하지만 그 뉴스내용은 보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등의 뉴스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수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였으며, 천재가 아닌 인재였고, 수해를 당한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며, 수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수재 의연금을 모은다」는 방송 내용... 회한하게도 수해가 일어난 시간, 장소, 사람 등은 바뀌는데도 그 안의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비전을 줄 수 있는 나라, 머리를 맞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관 우 주임교수 /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간염없는 세상을 위하여

10월20일 「간의 날」을 기념하여 소화기내과 조성원 교수로부터 만성 간염, 치료법, 간암에 대하여 들어본다.



‘간의 날’ 기념 다채로운 행사 열려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중 간질환과 간암이 매년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간암 발생률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실정이다. 이에 매년 10월20일을 간의 날로 지정하여 간질환의 홍보 및 예방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제 4회 간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 간학회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10월12일부터 1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간질환 공개강좌를 개최하며 동시에 간염 없는 세상을 위한 피아니스트 강동석의 희망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10월19일에는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10월20일에는 간의날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만성 간염으로의 진행

5종류의 간염 바이러스 중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만성 간염을 유발시킨다. B형 급성 간염에 걸리게 되면 약 5%의 환자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C형 급성간염에 걸리면 50% 이상의 환자에서 만성 간염으로 진행된다. 국내의 전체인구 중 약 6%는 B형 만성 간염 환자이며 C형 만성 간염은 1% 정도를 차지한다.

그리고 알코올성 간질환도 흔한 상황이다.

국내선 영아기 발병 확률 높아

서구에서는 성년기에 간염에 걸릴 확률이 높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출생 후 또는 영아기에 B형 간염 산모로부터 간염에 걸리는 경우가 흔하므로 중년기에 간경변, 간염으로 사망하게 된다. B형 만성 간염에 의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B형 간염 백신을 맞으면 B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다. 과거 수년간 예방 접종이 보편화 되면서 현재 임상에서 B형 급성 간염 환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향후 B형 만성 간염 환자는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B형 만성 간염은 1년에 5~10%에서 자연히 완치되며 약 30% 환자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간염의 치료법

간염의 상태에 따라 인터페론이나 라미부딘과 같은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약 30%에서 완치가 가능하다. 또 헤프세라 등 새로운 항바이러스 약제

가 조만간에 시판되어 치료 효과가 향상될 것이다. C형 만성 간염은 자연치유가 어려우며 간염이 심할 때 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합요법을 시행하여 약 30%에서 완치를 볼 수 있다. 최근에 개발된 페그 인터페론으로 치료하면 완치율이 40%까지 향상된다.

음주는 절대금물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가 간경변증으로 이행된다. 특히 음주를 하게 되면 진행이 더 빨라질 수 있다. 간경변증이 진행되면 복수 및 부종이 생기고 피를 토하거나 새까만 변을 볼 수 있고 복막염으로 고열과 복통의 합병증이 발생된다. 간경변 자체는 아직 치료법이 없으나 합병증이 발생할 때에는 적절한 치료로 증상이 호전된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간암

만성 간질환에서 간암이 발생되기 쉽다. 간경변증 환자는 매년 약 3%에서 간암이 발생된다. 간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게 되면 효과가 우수하나 말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간암의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간학회에서 제시한 간암 조기검진 방법을 보면 남자가 30세, 여자가 40세 이상인 만성 간질환 환자는 복부 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태아 단백질(AFP) 측정을 6개월 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간질환 환자는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생약, 한약 등 간에 부담이 되는 민간요법을 조심하여 간기능이 악화되지 않도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조성원 주임교수 / 소화기내과학교실

간(肝)

▶간은 어떤 기관인가?

간은 인체의 장기 중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재생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85%까지 잘라내는 수술을 받더라도 몇 달 후면 본래의 크기와 기능을 회복합니다. 오른쪽 위에서 4~5번째 갈비뼈 안쪽에 보호되어 있는 간은 무게가 1.5kg 정도로 인체의 단일기관 중 가장 큼니다.

간은 대사·배설·해독·순환 뿐만 아니라 혈액 응고에도 관여하여 5백여 가지가 넘는 기능을 담당하고, 1천 종이 넘는 효소를 생산합니다.

▶간의 주요기능

- **영양분 저장 기능** : 소장에서 흡수한 포도당이나 과당을 필요치 않을 때는 글리코겐으로 합성, 저장해 두었다가 공복 때처럼 포도당이 줄어들면 필요한 만큼 방출해 혈중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 **해독 작용** : 우리가 섭취한 알코올이나 약물 또는 각종 독성물질은 간에서 해독됩니다. 참고로 간이 1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은 맥주 반 병 정도라 합니다.
- **지방의 소화 촉진 기능** : 간은 소화 효소인 담즙을 생산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담즙은 인체 내에서 죽어가는 적혈구를 보존했다가 다시 만들고, 지방의 소화를 돕는 기능을 합니다.

B형 간염에 대한 오해

▶B형 간염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접촉하거나 포옹하는 정도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성관계는 주의해야 합니다.

▶B형 간염 환자와 함께 일하는 것은 불안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일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B형 간염에 걸리면 항상 아프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는 감염된 시기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지난 몇 개월 내에 처음으로 바이러스에 접

한 사람들은 급성 B형 간염에 걸리게 됩니다. 급성 B형 간염 환자 중 일부는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 B형 간염에 감염된 사람은 누구나 심하게 아프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성 B형 간염에 감염되어도 전혀 아프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감염자 중 일부는 간경변, 간암 등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되므로, 일단 만성 B형 간염에 감염되었으면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내일도 굿모닝!

언제나 시작이란 말은 가슴 설레면서도 두려운 존재인 것 같다. 처음 간호학부에 입학했을 때 거창한 포부나 사명감은 없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기대를 가졌었다. 동시에 4년 뒤에 과연 내가 좋은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지울 수 없었다.

졸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내게 주어졌던 4년이란 시간이 거의 다 지나왔다. 이제 다시금 새로운 출발선에 설 차례다. 입학할 때의 막연한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졸업을 앞둔 나에게 주위 분들은 항상 「환자들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걱정을 하신다. 지난 4년간 간호학을 접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내가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사람들은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간호사가 하는 일에 관해서는 일부분의 실무적 기술만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인 나는 종종 「주사 놓을 줄 아니?」라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물론 간호사로서 뛰어난 실무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에 더해 좀더 갖추고 싶은 것이 있다.



『환자를 보지 말고 인간을 만나라』 영화 「패치 아담스」의 주인공이 동료에게 한 말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의 꿈은 웃음 속에 담긴 사랑으로 병과 함께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다. 병원과 지역사회 간호실습을 하면서 치료 레크리에이션을 하거나 관찰할 기회가 많았는데 놀이를 하거나 야외 활동 등을 하면서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과 또 치료진들과 함께하면서 표정이나 목소리가 즐거워 보일 때, 질병과 병원에서의 생활로 힘겨워진 마음이 열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뿌듯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는 말을 좋아한다. 나를 스쳐지나갈 수 있는 모든 환자들이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결같은 손길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까지 거칠 수 있게 되는 것이 나의 큰 바람이다. 크나큰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내가 칭하는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지금의 이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0년 2월, 겨울이 채 지나기도 전에 입학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예비 의료인이 되었다. 너무 긴장을 해서 온 몸이 빨갛게 달아올랐던 기본 간호학 수행평가, 그동안의 수업을 바탕으로 3학년이 되면서 처음 나간 병원 실습 때의 긴장감, 어머니가 생각나 눈물이 났던 분만실 실습, 열심히 쓴 졸업 논문을 발표하는 순간의 박찬 마음 등 잊을 수 없는 경험들과 추억들은 내가 앞으로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잔잔한 기쁨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원동력을 함께 나눠 오늘도, 내일도 그 후에도 나의 간호를 받는 환자들과 내 주위 사람들이 「굿모닝」을 외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최수경 / 간호학부 4학년



건강한가? 신 일병

내가 처음 군대에서 군의관으로 근무를 했던 강원도 인제군의 한 군단사령부내의 본부대 의무실은 유사시 환자이송에 1시간 정도 걸리는 의료적으로 보면 비교적 열악한 곳이었다. 게다가 독립된 시설도 아니어서 의무실장은 지휘관 견장도 달지 못하는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다. 군단 의무실에 부임하던 첫날, 야전 군의관 시절에 만나본 중환자 중에서도 잊지 못할 환자를 만났다.

군대에 처음 왔을 때 누구나 경험하는 「신병증후군」처럼 두통을 호소해 의무실에 입실했다가 고혈압으로 군병원으로 후송 및 외진을 수차례 반복하며 혈압조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신일병. 그는 입대 후 군병원만 주기적으로 오가며 취사반이 아닌 의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불임성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얌전하고 원만하여 다른 환자나 의무병들과도 잘 어울리는 병사였고 특별한 신체적인 장애도 없었으니 의무실에서 허드렛일을 많이도 맡아서 했다.

이제 갓 20세를 넘은 어린 나이에 고혈압이라는 것이 특이해 병력을 물어보니, 입대 전 신체검사서에서 이미 고혈압이 발견되어 종합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지만 이차성 고혈압에 대한 원인은 찾지 못했다고 했다. 고혈압 환자가 어떻게 현역으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원래는 공익 근무원으로 판정이 나와 하는데 그 판정을 기다리는 긴 기간 동안 그냥 놓고 있자니 부모님께 폐를 끼치는 것 같아 현역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일단 약을 잘 먹도록 하고 혈압 조절이 잘 되는지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수축기 혈압은 150mmHg 이상이고 확장기 혈압도 100mmHg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았다. 간헐적인 두통을 호소할 때

는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이 나오기도 했다. 환자 상태가 호전이 없고 그렇다고 업무에 복귀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처치도 해줄 것이 없어 의무실에서 그냥 세월을 보냈다.

어떻게 이런 환자가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했는지 또한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은데도 군병원에서는 계속 약만 먹고 두고 보자며 돌려보내면 그가 속한 해당 부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건지, 제도나 현실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별달리 해줄 것이 없는 내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5개월이 지나서야 담당군의 관을 찾아가 도저히 통원치료로는 호전이 없으니 군병원의 임원 또는 상급병원으로의 후송을 건의했고, 군병원에서도 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아 수도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얼마 후 의병전역심사 명단에 신일병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에게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했다. 아마 그는 2년 남짓 별다른 일도 못하고 보낸 시간을 생각하며 많은 원망과 탄식을 했을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적절한 판단을 일찍 내리지 못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했다는 큰 아쉬움과 후회가 든다. 지금 어딘가에 있을 그가 건강히 잘 지내고 있었으면 한다.

김명성 연구강사 / 신장내과학교실

건강한 아가를 위한 지킴이, 신생아실 및 신생아집중치료실



하루에 8끼를 먹는 곳, 어른 주먹만한 체격에 600g, 700g부터 4500g까지 다양한 체중, 다 같은 아기 같은데 나름대로 병력을 가진 당당한 아주대병원의 재원 환자들이다. 이런 아기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 무려 26명이나 있다. 그 작은 몸 구석구석 어른 중환자 뽑치는 튜브, 모니터링 줄, 혈관주사줄, 중심정맥관, 각종 센서들이 붙어있고, 행여 피부가 상할까 그 모든 것들에는 피부를 보호하는 특수 반창고까지 함께 붙이고 있다.

아기 몸집만한 간호사들의 손길이 행여 아기가 놀라거나, 아프게 할까 조바심을 하며 세심하게 이루어지고, 작은 행위 하나하나에도 어른들에게 소요되는 시간의 몇 배가 걸린다. 600g 초미숙아의 체위변경에 간호사 2~3명이 달라붙는 것은 아기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튜브, 각종 센서줄, 모니터링 줄, 혈관주사줄 등이 조금이라도 당겨지고 빠지면 아기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되는 상황을 막고자 함인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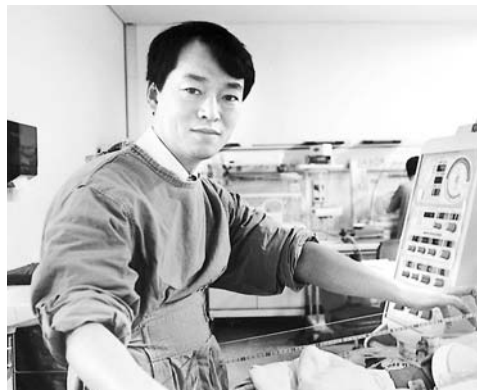
있다.
『아기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우렁찬 분만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 갑작스럽게 분만되어진 미숙아의 입실은 항상 상상을 초월한다. 그만큼 신생아집중치료실은 24시간 언제라도, 심지어 자리가 있건 없건, 태어나는 귀한 생명들을 받아서 돌봐야 한다. 혼자서는 숨도 못쉬고 새파래지고 체온조절도 못하는 작은 생명이 발그스레하게 그 힘을 찾을 수 있게 그 자리의 모든 의료진들이 그 순간 만큼은 그 아기에게 집중한다. 수십 개의 손이 급박하게 움직이면서 엄지공주만한 우리의 아기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면회시간 인큐베이터의 유리 안으로 미처 주지 못한 엄마 아빠의 사랑과 안타까움이 아기에게 전달될까, 엄마 손가락에 잡힐까 말까하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는다.

아주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은 매일 이루어지는 x-ray 촬영, 혈액 검사, CT, MRI, 체위변경, 흡입 등 혹독한 치료과정을 어른과 마찬가지로

지로 감내하는 우리 아기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합병증 없는 자람을 의료진 모두 기원하며, 보다 더 잘 키울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익히는 것에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루 하루를 아가들보다 더 큰 고통과 긴장 속에 보내는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실내온도 24℃의 온화한 공간이 되고자 한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신생아실에서는 항상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를 기뻐하는 엄마, 아빠와 가족들로 넘친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4시간 돌보기를 낀 기분으로 아기에게 행여 안 보이던 문제가 없을까, 손금하나 이상하지 않은지 계속 세심하게 구석 구석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를 것이다. 집으로 퇴원하는 순간까지 정상 신생아들은 아기의 완전한 건강을 체크하여 간다. 지금까지도 또한 앞으로도 아주대병원 신생아실은 건강한 아기들의 굳센 지킴이가 될 것이다.

NICU를 책임지고 있는 박문성 교수가 말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고위험 신생아인 미숙아와 의학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만삭아의 치료 및 간호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병동이다. 성인과는 달리 아주 짧은 순간에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치료실의 위치도 분만실 및 신생아실과 인접하여 분만시부터 특별한 수련과 기술을 가진 의료진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개원 초 16병상으로 시작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현재 26병상으로 증설되어 경기도 지역은 물론 충청권의 산부인과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이송되고 있어 한해 1,000여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는 20여대의 인큐베이터와 10대의 호흡기가 있으며, 모든 환자들은 각각 호흡과 맥박 등의 활력징후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로 지켜지고 있다. 또한 1분에 900회 이상의 부드러운 호흡을 함으로 미숙아의 연약한 폐의 손상을 최소화 시키는 고빈도호흡기와, 폐동맥고혈압의 치료에 새로운 치료인 산화질소가스 흡입

용 호흡계 등의 사용으로 극미숙아의 생존율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우리 신생아집중치료실의 가장 큰 장점은 정명숙 수간호사 이하 모든 간호사들이 신생아집중치료를 특별히 숙련되어 있으며, 매년 신생아학 강의를 통해 전문 지식을 익히고 이에 의한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있다.



권혜연 간호사가 말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개원 때부터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해 온 권혜연 간호사는 그동안 돌봤던 모든 아기들에게 애착이 간다고 한다. 아직 미혼이라 직접 산고를 겪어보지는 않은 처녀 엄마지만 모든 아기를 내 아기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

환아가 힘겨운 치료를 이겨내며 생명의 줄을 놓지 않는데도 엄마가 먼저 지쳐서 포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무척 안타깝다. 그 때 「희망을 갖고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다.

희망이 없어 보이던 아기가 부모의 지극 정성으로 회복해 100일 잔치도 하고, 첫돌이라며 부모 손에 이끌려 아장 아장 걸음으로 찾아왔을 때는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할 감동을 받는다. 이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아기들이 하늘로 가는 것을 눈물을 삼키며 지켜봐야 하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다고 한다.

권혜연 간호사는 적절한 의료진의 손길도 중요하지만 아픈 아기들에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치료약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한다.



폐암 진단의 필수, 기관지경



호흡기내과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

굴곡성 기관지내시경은 기관지 안에 지름 약 5mm 가량의 가느다란 내시경을 집어넣어 기관지 안의 병변을 검사하는 장비이다. 약 30년 전부터 환자의 임상진료에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전까지는 수술을 통한 방법 말고는 불가능하던 기관지 병변의 직접 확인과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같은 유용함에 힘입어 현재는 호흡기내과 영역에서는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가 되었다.

폐암의 조직학적 진단에 필수

대표적인 검사 대상 질병으로는 현재 전체 암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호흡기계 종양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폐결핵을 보다 확실하게 진단하거나 기관지의 구조적인 이상을 진단하는 데에도 널리 쓰이며, 기관지내 분비물 및 이물질 제거, 기관지 협착 확장, 낭종제거, 기관지 세척술 등 치료적인 시술에도 이용된다.

아주대병원, 지난 9년간 6천여건 시행

아주대학교병원은 1994년 개원 이래 현재까지 약 6,000건에 가까운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여 환자 진료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장비는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기관지내시경 제조사인 일본 올림푸사의 최신 제품으로 전자식 및 광학식 내시경을 포함 총 여섯 개의 내시경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시술 받는 환자의 안전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 매번 충분한 내시경 소독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시술 중 실시간으로 환자의 호흡과 혈중 산소 수치를 측정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다.

검사시간 15분 이내, 그 자리에서 결과 확인

기관지내시경의 시술시간은 검사에 대한 설명과 환자에 대한 담당 의사의 진찰, 시술전 마취시간까지 포함하여 약 10분에서 15분 가량이 필요하다. 검사 후 기침과 가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한나절 정도 안정하면 바로 회복된다. 시술 직후 환자와 보호자는 직접 시술한 의사로부터 내시경을 통해 관찰한 육안결과를 설명들을 수 있다. 나머지 배양 검사나 세포검사, 조직검사 등 모든 검사결과는 수일 후 다시 외래를 방문했을 때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상담 받을 수 있다.

기관지내시경이 유용하게 쓰이는 대상 질병의 증가와 보다 정확한 진단을 원하는 환자와 의사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기관지내시경의 시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그동안 운용해온 기관지내시경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고 편하고 안전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 승 수 교수 / 호흡기내과학교실



면역질환의 원인인 단백질 규명

지난 1년 6개월간의 미국 국립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면역세포의 세포내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 규명과 관련된 연구를 마치고 귀국한지 채 한달이 안됐다. 연구를 시작한지 벌써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나의 연구의 주제는 항상 환자의 혈액내의 항체 그리고 이 항체와 반응하는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나의 연구에 대한 이야기는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에 얽힌 이야기들이다.

면역학은 학생시절부터 나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은사님께서 석사학위 실험으로 관해주시신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인 전신성 루푸스 환자의 혈청 속에 있는 뇌세포에 자가 항체를 검출하는 연구 중 환자들의 혈청에 의해 염색된 뇌세포들이 밤하늘에 별처럼 영롱한 초록빛으로 빛나는 것을 본 순간 너무나 짜릿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도 이때에 느낀 희열이 현재까지 나 자신의 연구를 지속시킨 계기라고 생각한다. 그 후 약 2년간은 어떻게 하면 루푸스의 원인 단백질(자가항원)을 찾아서 이 병을 완치시킬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과대망상적인 고민을 했었고, 이러한 나를 친구들이 「루푸스 남」이라고 놀림 반 농담 반으로 불러주던 때가 있었다.

루푸스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싶었던 꿈은 박사학위과정에서 천식을 주제로 선택하게 되면서 수정되게 되었다. 「천식환자의 혈액내에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집먼지진드기의 단백질 성분이 항체와 결합된 면역복합체의 상태로 존재하며 이 면역복합체가 질병발생에 기여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들을 진행하였으며 아주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된 이후에도 천식 환자의 객담 내에 존재하는 집먼지진드기에 대한 항체가 천식의 염증반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는 등 집먼지진드기 단백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기관지천식 환자와 전신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스스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임상적으로 기관지천식, 특히 성인에서 발생한 중증천식의 경우 질병의 경과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들이 이미 자가면역 기전이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과 매우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치료 약물에 대해 반응이 적은 중증천식환자의 경우는 외부물질들에 대한 알레르기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이들 비알레르기성 천식의 경우는 과거로부터



환자의 몸속에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소위 「내인성 천식」으로 불리어 왔으나 아직 이들 환자의 몸 안에 존재하는 어떠한 원인으로 만성적인 기관지의 염증이 발생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내인성천식의 발병기전에 대한 실마리를 알아내고자 먼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관련된 문헌들을 조사한 결과 과거의 여러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내인성 천식의 발병에 자가면역기전이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내인성 천식과 연관된 단백질(자가항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난 약 5년 동안 기관지 조직 내에 존재하는 어떠한 단백질이 자가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한 결과, 기관지상피 세포에 존재하는 「싸이토크리틴 18」이 내인성천식 환자들의 혈청안에 존재하는 자가항체에 의해서 인지되는 질병과 관련된 자가항원 단백질을 최초로 밝혀내어 작년에 미국학회지에 보고할 수 있게 되었다.

전공의 시절에 가졌던 루푸스에서 못다 푼 나의 꿈이 기관지천식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 다만 내가 앞으로 연구를 계속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 질병과 관련된 중요한 단백질을 규명하여 내가 진료하는 환자들에게 진단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실제로 쓰여 질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최선을 다할 따름이다. 물론 나 자신 이러한 일이 얼마나 어려우며 확률적으로 희박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러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오래도록 가슴 한 구석에 한 가닥 희망과 이로 인한 행복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남 동 호 교수/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학교실



과일과 채소, 토마토

하루 5회 이상 먹어야 암 예방

효과적인 암 예방법의 하나로 미국암학회에서는 하루 5회 이상 과일과 채소를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과일과 야채에는 바쁘게 간단히 먹는 식생활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외 다양한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 파이토케미칼(phytochemical)이란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토케미칼이란 식물에서 유래한 화합물이란 뜻으로 수많은 종류의 기능성 영양소를 말한다. 식물의 천연색소를 구성하는 물질로서 다양한 색깔을 내며 이들의 효능으로는 항산화, 항염증 및 해독작용이 있다. 나무들에 있는 피톤치드(phytoncide)라는 물질과 같이 식물들에게 자외선과 환경, 곤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연적으로 생긴 물질이다. 특히 과일이 익으면 점점 색이 진하게 되는데 이는 파이토케미칼의 양도 많아지는 것을 말한다.



익혀 먹어야 좋은 토마토

역학적으로 과일과 채소의 섭취와 암 또는 다른 질병의 예방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하버드대학 연구팀은 과일같은 채소인 토마토 섭취를 많이 한 군에서 전립선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음을 발표하였다. 또 시카고의 한 대학에서는 전립선 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까지 3주간 매일 스파게티 소스를 이용한 음식을 배달하여 먹게 하였고 그 결과 전립선암의 종양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효과를 가지는 성분으로는 토마토의 색을 내는 라이코펜(lycopene)이다. 모든 음식들은 조리법에 따라 함유된 성분의 성질도 변하고 흡수되는 양도 변화한다. 토마토도 <표1>에서 보듯이 열을 가하는 조리 과정을 거쳐야 라이코펜 성분의 흡수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토마토를 그냥 씻어서 먹거나 믹서로 갈아서 먹기보다는 조리를 거친 스파게티 소스, 가공을 거친 주스 등에 훨씬 많은 양의 라이코펜이 있다. 또한 토마토를 익히면 단 맛이 생겨 싫어하던 아이들도 먹을 만하다고 한다. 토마토의 효능으로는 전립선암 외에도 자궁경부암, 유방암, 난소암, 방광암, 그리고 심장병 등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발표되고 있다.

진한색 과일이 좋아

과일들도 색이 진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오렌지와 꺾이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며 유해산소의 활동을 저해하는 항산화효능이 있으며 비타민 C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주스로 만들어 즉시 먹는 것이 비타민 C를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최근에 쉽게 구할 수 있는 키위는 비타민 C가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게 들어있고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 화합물도 많이 있다. 보라색 과일의 상징인 포도는 껍질에 있는 색소의 효능으로 동물성 지방 섭취로 생기는 혈관벽의 노폐물을 덜 침착하게 한다는 사실이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혈류 개선의 효과를 동물실험으로 확인한 포도씨 추출물이 약품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위의 연구결과는 적색 포도주가 건강에 좋다고 소문난 이유이며 프랑스인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심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이 적다는 「프랑스 패러독스」를 뒷받침하고 있다.

제철 과일을 골고루 섭취해야 득

과일을 고를 때는 신선한 제철 과일을 찾고 밭에서 완전히 익어 색이 선명한 것을 고르며 가능한 다양한 색깔의 과일을 골고루 먹음으로써 서로 다른 항산화 효과를 최대로 얻는 것이 현명하다. 이는 동물실험에서 각종의 비타민을 종합하여 섭취하는 것이 한가지만을 섭취하게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암이 예방이 되는 것을 확인한 결과가 뒷받침한다.

<표1>

제 품	라이코펜(mg/100g)	한 번에 먹는 양
조리된 토마토 주스	9.5	250ml(1컵)
토마토 케첩	15.9	15ml(1티스푼)
스파게티 소스	21.9	125ml(1/2컵)
토마토 페이스트	42.2	30ml(2티스푼)
토마토 수프	7.2	250ml
토마토 소스	14.1	60ml(1/4컵)
수박	4.0	360g(1쪽, 25×2cm)
자몽	4.0	123g(1/2)
토마토 자체	3.0	123g(1개, 중간크기)

전 미 선 주임교수 / 치료방사선과학교실



이주대학교병원 영양연구회에서 콩, 된장, 두부, 차의 종류와 효능, 야채류와 비타민, 김치와 젓갈 등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음식 속 건강」을 연재합니다. 영양연구회는 암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이주대의대 교원 등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치료방사선과 전미선 주임교수를 주축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日本 고급 건강진단의 진수를 맛보다!

이주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김광민 소장을 포함한 국내 건강증진센터 소속 교직원 17명은 교토에서 개최된 제44회 일본건강검진학회에 참석을 겸해 일본의 건강검진센터를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2001년도에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시도했다는 소피아 병원이다. 이곳 검진센터에서는 주로 개인검진을 위주로 하는 고급검진을 실시하고 있었다. 검진비용은 남자는 160,000¥(약 1백60만원), 여자는 165,000¥(약 1백65만원)으로 수신자가 원할 경우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데 비용이 별도로 추가되는 등 초고가여서 하루의 검진자수는 약 7~8명 선이다.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중 인상 깊었던 것은 3DCT와 전자차트(EMR)였다. 3DCT는 3D대장영상, 3D뇌표면상, 3D심장영상, 3D위장영상(가상내시경영상) 등의 3차원적 영상구조를 얻어 기존 검사의 번거로움과 검사 대기시간을 줄였고, 검사에 대한 정확성과 신속성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기존의 종이차트 대신 전자차트(EMR)를 이용하여 차트 신청 및 반납, 보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바로 PC에서 차트를 기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검사 결과표에는 검사한 각종 영상자료 등 검사한 모든 자료를 CD로 제작하여 수신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와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이 병원에서는 전국의 병의원과 인터넷으로 진료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환자진료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ISO인증을 획득했다는 다케다(武田病院)병원의 건강검진센터였다. 1일 검진자수는 약 40~50명이며 오전에는 주로 성인병검진을, 오후에는 회사검진을 운영하고 있었다. 검진 프로그램은 일반검진과 특수검진 및 숙박검진이 있으며, 1일 숙박검진은 잠재적인 질병을 발견하기 위한 검진으로



▲ 참관자들과 함께 (오른쪽으로부터 7번째가 박상언 방사선사)

심장초음파검진, 운동부하심전도검사, 골량 측정검사 등을 추가했다. 다케다병원 관계자는 동맥경화검사용 장비가 무척 간편하고 검사방법도 매우 간단하다고 자랑을 하였는데, 검사결과의 정확도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갔다. 디지털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탈의실 옷장과 크기 순서대로 배낭에 담아 놓고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입을 수 있도록 한 운동복 같은 검사용 가운은 벤치마킹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선진 건강검진의 흐름은 정밀, 고가, 특수검진, 특히 숙박검진이라는 것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학문적 체계화와 전문성 확립, 검사법의 표준화, 고가 검진비용에 대한 부정적 측면의 해소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다.

귀한 손님을 대하듯 최고의 서비스 제공과 친절을 베푸는 것, 병원 분위기가 차분하고 깨끗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말로만 듣던 친절을 몸소 체험하고 나니 일정이 끝날 즈음엔 나도 모르게 상대방 눈빛만 마주쳐도 「すみません!(감사합니다·미안합니다)」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경험을 했다.



▲ 다케다병원 건진센터의 탈의실(디지털 잠금장치와 크기별로 구분해 진열되어 검진복).

박 상 언 책임방사선사 / 건강증진센터

간경화의 근본 치료

간경화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간장의 섬유화로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질병인데, 이 단계에서는 약물치료만으로 굳은 간을 정상으로 돌리킬 수 없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가 가장 많으며, 간경화가 진행되면서 간암으로 발전되기도 하므로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게 된다. 일단 간경화가 있는 경우 근본적인 치료는 정상인 새로운 간을 이식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간이식은 오랜 시간의 마취와 복잡한 수술과정을 통하여 굳어진 간을 제거하고 건강하고 새로운 간을 이식하게 되는 수술 치료로, 수술 후 회복이 원활하여야 건강한 생활을 찾을 수 있다. 수술 후 무난하게 회복하려면 수술전 환자의 전신상태가 가장 중요하며, 회복하는데 필요한 체력이나 저항력, 상처가 아무는 생리적인 과정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수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간경화 환자는 근본적인 치료인 간이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 시기를 현명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간경화가 있는 환자나 가족들은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이 있어 생명이 위독해져야 비로소 이식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의 수술은 작은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위험도가 크며, 수술 후 환자가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하물며 간을 바꾸는 대수술을 그러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단지 이식수술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고, 꺼져가는 생명을 방치할 수 없어 수술을 시도해 보기는 하나, 수술 후 회복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이는 어느 나라, 병원, 의료진에 관계없이 환자 스스로 처해 있는 수술 전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이다. 필자가 버지니아 주립대학 이식외과 전임의로 근무했었을 때, 수십 명의 간이식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대부분의 환자는 비교적 수술 전 양호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었다. 반면, 말기 환자의 경우는 그 회복기간도 길고 잘 회복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예도 더러 있었다.

우리 나라의 간경화 환자들은 간이식에 대하여 매우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한두 번의 합병증을 경험한 환자도 당장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근본적인 치료를 꺼려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이식은 마취와 수술의 위험도를 감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경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될 수 없는 질환임을 감안하면 상태가 더욱 나빠지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2000년도부터 시행되어 간이식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다. 간경화로 인한 검사 소견이나 증상이 있었던 환자는 간이식이라는 근본적인 치료를 받도록 이미 법률로도 정해져 있으며, 아주대학교병원에서도 대상이 되는 환자에게 간이식이라는 근본적인 치료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번이라도 황달, 복수, 복막염, 간성혼수, 토혈 등의 간경화 합병증이 있었거나 검사상 혈중 알부민 저하, 혈액 응고인자의 저하가 확인된 환자는 서둘러 간이식이라는 근본적인 치료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하겠다. 아주대학교병원 3층 장기이식 상담실 (031-219-5547)은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

다음호에는 「간이식의 절차」에 대한 내용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오 창 권 교수 / 외과학교실

제 몸을 나누어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장기기증은 세상의 가장 값진 사랑입니다. 가슴시리도록 고귀한 이 사랑을 베푸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장기이식 TFT ·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문의전화 031-219-5547 | 016-9277-5376

의료원 ▶▶▶

제1회 수원시 보건의료인 공로상 대상에 이진창 내과의원 이진창 원장 선정



아주대의료원과 수원시가 공동으로 제정한 제1회 수원시 보건의료인 공로상 대상에 이진창 내과의원의 이진창 원장이 선정됐다.

이진창 원장은 약 13년간 수원시에서 양로원 무료의료봉사활동 및 세류동, 권선동 거주 무의탁 노인을 위한 호스피스 활동을 해온 점이 인정되어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공로패와 상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금상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 노동상담, 생활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추진하고 있는 천주교 엠마우스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소 진료팀이, 은상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진단 종목 개선 및 5대 암에 대한 암검진 선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며 경기, 인천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 온 건강보험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 박태수 본부장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9월5일 금요일 오후 5시 아주대병원 지하 1층 아주홀에서 개최됐다.

수원시 보건의료인 공로상은 수원시와 아주대의료원이 지역사회에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후학들에게 본보기를 제시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의료 및 진료, 정책 및 연구, 봉사, 기타라는 4개 분야 중에서 뚜렷한 공적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시상하는 상이다.

의료원, 태풍 '매미' 수재의연금 모금 · 동아일보사에 기탁 및 피해 교직원에게 격려금 전달



의료원은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가족과 생활터전을 잃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뜻을 모아 수재의연금을 모금했다.

이번 수재의연금 출연금액은 2천만원으로, 아주대학교와 공동으로 모금하여 「아주대학교 및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직원 일동(총장 모명)」 명의로 4천만원의 성금을 동아일보사에 기탁했다.

한편, 의료원은 9월27일 토요일 별관 5층 대회의실에서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직원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지난 9월15일부터 10일간 태풍에 의한 교직원재해 피해를 접수한 결과 23명이 생계성 피해를, 6명이 비생계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생계성 피해를 입은 23명에게 위로금을 전달했으며, 5명에게는 휴가를 제공하는 등 아픔을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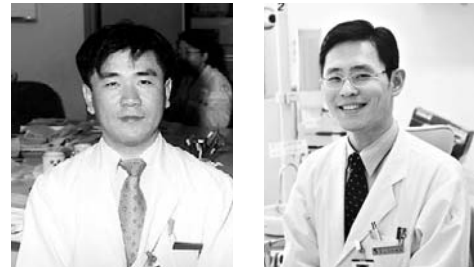


9월 광교산 자연보호행사에 교직원 참여

의료원은 지난 9월2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9월 광교산 자연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아주대병원 홍창호 병원장, 최영 행정부원장 등 교직원 130여명은 경기대 입구에서부터 형제봉, 백년 약수터, 문암골 입구에 이르는 등산로를 따라 쓰레기 줍기 자연보호 행사를 펼쳤다.

의과대학 ▶▶▶

순환기내과 신준한 교수 · 치과 이정근 교수 귀국, 진료재개



신준한 교수 이정근 교수

순환기내과학교실 신준한 교수와 치과학교실 이정근 교수가 장기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 진료를 재개했다. 순환기내과학교실 신준한 교수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미 Cleveland Clinic Foundation에서 2년간 심초음파에 관한 새로운 진단법을 습득하고 심질환 진단에 관한 연구를 했으며, 진료시간은 목 오전, 화 오후이다. 치과학교실 이정근 교수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약 1년 간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악골 기형치료 및 임플란트의 임상적 이용, 치료 성공률의 배가를 위한 jawbone biology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복직했다. 월, 화, 수, 목 오전과 화, 수, 목 오후에 진료를 한다.

대한관절경학회 우수논문상 및 분자임연구학회 포스터발표 대상 수상

정형외과학교실 민병현 교수가 지난 9월19일 대한관절경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은 대한관절경학회 2003년 6월호 학술지에 발표된 「정상 반월상 연골의 혈관 분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그 내용이 우수하고, 관절경학 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또한 생화학교실 박민선 연구강사가 지난 8월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 2003년 분자임연구학회에서 포스터발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발표내용은 「A novel alternative splicing form of c-Met receptor tyrosine kinase」이다.

간호학부 4학년 논문발표회 개최

간호학부는 지난 9월5일 금요일 오후 3시 별관 대강당에서 2003학년도 간호학부 정규 4학년 논문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일 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건강상태와의 관계」 등 총 7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도서기증> 약리학교실에서는 「임상약리학」 외 300여권의 도서를, 내분비학교실에서는 「내분비학」 외 170여권의 도서를 의학문헌정보센터에 기증했다.

연구소 ▶▶▶



김승엽 석좌교수, 국제 신경병리학 회의에서 논문발표

뇌질환연구센터 김승엽 소장이 지난 9월14일부터 18일까지 이태리 토리노에서 개최된 국제 신경병리학 회의에서 「뇌질환 재생을 위한 신경줄기세포」라는 주제의 워크샵을 주관하고, 「유전공학적으로 변환한 사람 신경줄기세포의 뇌이식」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병원 ▶▶▶



신경통증클리닉 2층으로 확장 이전

병원은 9월22일 신경통증클리닉을 병원 1층에서 2층 대회의실로 확장, 이전했다. 이번 신경통증클리닉 이전은 기존의 외래, 치료실, 진단방사선과 내 체외활영실과 3층 신경통증치료실 등 분산되어 있던 검사 및 치료실을 한 곳으로 모아 환자의 동선을 대폭 단축시키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한 것이다. 이에 신경통증클리닉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한 곳에서 진료 및 검사, 치료가 모두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신경통증클리닉은 9월22일 월요일 오후 1시30분 오픈식을 거행했다.



관절염센터 「류마티스 관절염의 최적 치료 및 관리」 심포지움 개최

병원 관절염센터는 9월23일 화요일 오후 7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관절염센터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최적 치료 및 관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움은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박해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서창희 교수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약물 치료」에 대해, 정형외과 한경진 교수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 재활의학과 임신영 교수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재활치료」에 대해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간호부, 협력병원 대상 병원연수 실시

병원 간호부는 지난 9월23, 24일 양일간에 걸쳐 병원 지하 1층 아주홀 및 여러 회의실에서 전국 및 지역병원과의 정보교류를 위해 병원연수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연수는 임상간호사회에서 지난 4년동안 매년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집중 치료실 간호과정과 응급의료센터 간호과정을 우리 병원의 협력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총 30명의 간호관리자가 참석했다.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정보 제공

병원 내 위치하고 있는 수원응급의료센터(1339)에서는 2003년 9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추석 연휴기간 동안 총 21명을 투입, 비상 근무체제로 운영하면서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안 내와 질병 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 등 총 9,780건을 처리하여 경기도민의 의료정보 이용에 편의를 제공했다.

질병상담은 복통, 소화기계 질환 등의 의뢰가 많았으며, 특히 이 기간 동안 유행성 결막염이 유행하여 진료가 가능한 병원 안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안과진료와 관련된 추가 지정병원을 선정하여 적극 대처했다.



조혈모세포이식 300회 기념행사 개최 안내

아주대병원 조혈모세포이식팀은 오는 10월18일(토) 오후 1시30분부터 4시까지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조혈모세포이식 300례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아주대병원 조혈모세포이식 300례 돌파를 자축하고 조혈모세포이식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환자들의 모임 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1부 조혈모세포이식 300례 기념행사에 이어 2부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특강, 3부는 의과대학 메디컬버 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과 의료진과 환우들이 함께하는 나눔의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조혈모세포이식팀은 관심있는 종양·혈액 질환자 및 가족, 일반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행사안내

- 일시 : 2003년 10월18일(토) 오후 1:30~4:00
- 장소 :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지하 1층 대강당
- 주최 : 아주대학교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 / (사)한국혈액암협회
- 주관 : 아주대학교병원 중앙혈액내과
- 문의 : 중앙혈액내과 ☎ 031-219-5989

신문. 방송에 보도된 아주대의료진

신문(Newspaper)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8.28	국민일보	신경통증클리닉 김찬 교수	희귀병 눈물겨운 시루 - 설인신경통
8.28	중부일보	소화기내과 김진홍 교수	아주대병원 국내최초 소장내시경 기술
8.29	중앙일보	알레르기·류마티스과 서창희 교수	등 푸른 생선의 지방이 중풍·심장병 예방
8.29	세계일보	신경외과 조경기 교수	계추출 키토산 합성물질 뇌종양 치료 탁월
8.30	한국경제	신경외과 조경기 교수	홀미움-키토산 양성 뇌종양 치료에 효과 뛰어나
9.8	한국일보	신경외과 조경기 교수	간암 홀몸주사제
9.9	국민일보	신경외과 조경기 교수	홀미움-키토산 복합제 효과 입증
9.8	동아일보	신장내과 김홍수 교수	신베스트닥터의 건강학 - 콩팥질환
9.15	경인일보	뇌질환연구센터 김승업 석좌교수	국제 신경병리학회에서 논문발표
9.15	경기일보	뇌질환연구센터 김승업 석좌교수	국제신경병리학 워크숍 주관
9.16	헤럴드경제	뇌질환연구센터 김승업 석좌교수	국제신경병리학 워크숍 주관
9.16	중부일보	뇌질환연구센터 김승업 석좌교수	국제 신경병리학 회의참석
9.16	중앙일보	피부과 이성낙 석좌교수	겨드랑이·발·세균제거
9.16	인천일보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추석 연휴 후유증
9.22	동아일보	내분비대사내과 이관우 교수	신베스트닥터의 건강학 - 당뇨병
9.23	중앙일보	가정의학과 손중천 연구강사	수해지역 「질병 후 폭풍, 더 무서워
9.24	한겨레	알레르기·류마티스과 남동호 교수	꽃가루 알레르기 가을이 더 괴로워
9.24	경향신문	치료방사선과 이윤숙 연구강사	설탕은 달콤한 毒

방송(Broadcasting)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9.1~2	Health Sky TV 베스트클리닉	알레르기·류마티스과 서창희 교수	류마티스관절염클리닉
9.2	YTN뉴스	신경외과 조경기 교수	뇌종양·약물치료 효과
9.2	iTV 뉴스	신경외과 조경기 교수	뇌종양 새 치료법
9.8	KBS뉴스광장	신경외과 조경기 교수	남성 뇌종양 주사로 치료
9.8~9	Health Sky TV 베스트클리닉	알레르기·류마티스과 박해실 교수	별독알레르기클리닉
9.9	KBS 생로병사의비밀	소화기내과 조성원 교수 외과 왕희정 교수	간암, 40세에 잡아라
9.12	KBS 희망풍경	이비인후과 문성균 교수 재활의학과 임신영 교수	장애 조기발견 중요
9.15~16	Health Sky TV 베스트클리닉	정형외과 한경진 교수	수부클리닉
9.16	KBS 생로병사의비밀	소화기내과 함기백 교수 외과 조용관 교수	위암, 당신도 위험하다
9.20	KBS 추적60분	응급의학과 조준필 교수	2003년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하는가
9.22~23	Health Sky TV 베스트클리닉	순환기내과 최병일 교수	심부전클리닉
9.25	KBS 세상의 아침	치료방사선과 전미선 교수	치유무용

아주사회사업기금

후원구좌 가입 안내



아주대병원 사회사업팀에서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및 재활용품 지원, 지역사회내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아주사회사업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지로계좌번호 7657236
- ▶ 은행무통장 입금
제일은행 692-20-116147
- ▶ 예금주 아주대학교의료원

개원 9주년 기념행사

아주대학교병원은 9월6일 개원 9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9년 동안 의료원 교직원 모두의 노력을 돌아보며 보다 더 알찬 결실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며 화합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가 한마음 되는 개원 9주년 기념행사

아주대학교의료원 개원 9주년을 맞아 지난 9월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원 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1부 행사는 근속상 및 공로상 수여식과 아주대학교병원 9주년을 축하하는 아주대학교 오명 총장이 격려사와 홍창호 병원장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오픈닝 게임 행사에서는 무술시범과 타악기 연주, 무용 등이 접목된 퍼포먼스 공연이 있었고, 「함께 배워 봅시다」란 코너에서 무도회장에서 즐길 수 있는 댄스로 신나게 몸뭉기를 했다. 또한 8월29일 예선을 통해 선발된 「제2회 Ajou Singer 선발대회」에서 13명의 본선 진출자들이 열띤 경연 속에서 참가자들은 물론 관객들도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나이 및 남녀 부분별 단축마라톤과 OX퀴즈가 진행됐다.

3부에서는 단축마라톤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이 있었으며, 건조점용 드럼세탁기, 흡시어터 패키지, DVD 플레이어, 김치냉장고, 평면 TV 등 푸짐한 상품을 준비하여 총 28명에게 행운을 안겨주었다.

이후 체육관 잔디광장에서 개원 9주년을 축하하는 케익 커팅식을 시작으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개원 9주년을 기념하여 교직원들에게 근속상 및 공로상, 감사장을 수여했다.

근속상은 진단방사선과학교실 서정호 교수를 비롯하여 10년간 근무해온 31명의 교직원에게 수여됐다.

또한 총장상은 건강증진센터 김혜숙 행정과장, 재활의학과 김행란 작업치료실장에게 수여됐으며, 의료원장상은 진단방사선과 김재호 방사선사의 4명에게 수여됐다. 의학문헌정보운영팀 전성현 계장의 9명에게 기관장상이 수여됐으며, 총장상과 의료원장상 수상자들에게는 해외연수여행이 부상으로 지급됐다.

이외에 SARS부문, 단체활동부문, 협력업체, 자원봉사자 부분으로 나뉜 특별상이 총 11명과 2개의 단체에게 수여됐다.

한편, 의료원은 아주대학교의료원의 학생, 교직원 및 내원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온 협력업체 아라코(주) 정순석 대표이사과 의료원 수납업무를 지원하고, 교직원 개개인의 안전한 여신관리를 해준 주거래 은행인 (주)제일은행 김진영 수원지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감사패를 수상한 분들과 함께

개원 9주년 기념 공로상-총장상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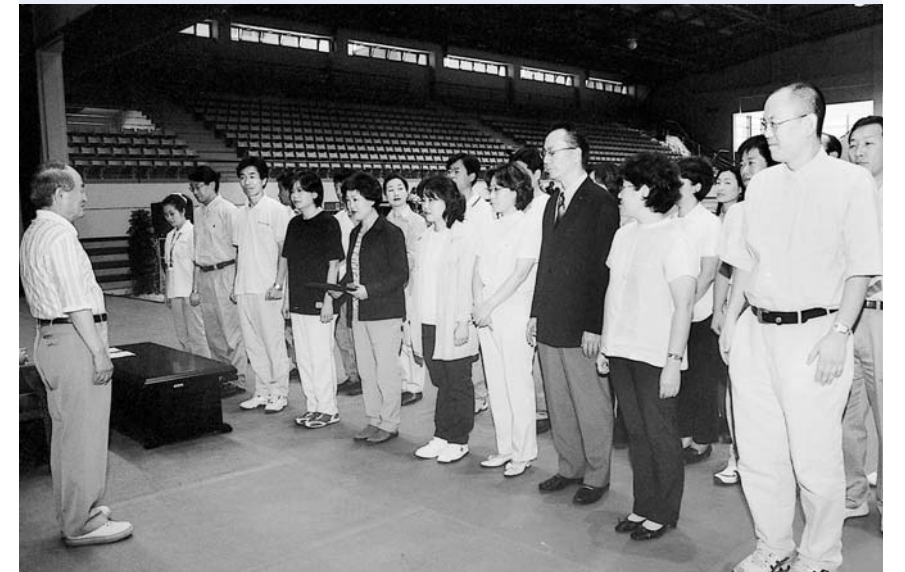
건강증진센터 김혜숙 행정과장



재활의학과 김행란 작업치료실장

김혜숙 과장은 지난 6년간 간호부장직을 수행하면서 임상간호업무의 안정화와 간호수준 향상을 위해 헌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재활의학과 김행란 작업치료실장은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서비스 정신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며, 특히 재활환자 작업치료에 최선을 다하여 의료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총장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을 기다려왔다!
우승은 나의것!

나의 실력을
보여주지~
빠빠!

아주대학교의료원 만세!

완벽한 준비로 심사위
원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나는 휘파람 소녀~♥

부원장님의 맨
스플렉이 장난이
아닌데...

빅미마~
빅미마~
빅미마~

귀엽지?
반반지?
사랑스럽지!
♥♥♥

좋아! 좋아!
아주대학교의료원
좋아!

과연, 드림세탁기의
주인공은?

어느 때 지식
돌인지, 고것 참!
뽕망뽕망하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X-ray에 왼쪽 가슴 아랫부분이 검게 나왔어요.



Q 아버지가 2년전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 건강검진을 하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가슴 왼쪽 아랫부분이 검게 찍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심장세포가 45% 가량 죽은 상태인데, 왜 사진이 그렇게 찍혀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A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심장근육으로 혈액순환이 안돼 심장이 과사 되는 질환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이나 질문하신 분의 아버님처럼 과거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경우 모두 흉부단순촬영(엑스레이검사)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과거 심근경색으로 입원 당시 관상동맥내 스텐트삽입술 등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스텐트는 매우 미세하여 흉부단순촬영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아버님이 흉부단순촬영에서 좌하부의 검은 영상이 보였다고 하는데 일반인이 사진의 이상을 알아보는 어려우므로 일단 건강검진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소견이 보인다면, 그리고 현재 심장질환으로 진료받고 계신 주치의 선생님이 계시다면 건강검진 결과를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순환기내과 최소연 교수 〉

순환기내과 외래 031-219-5717



백반증과 마이클 잭슨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의 마이클 잭슨의 지명도는 한물 간(?) 미국의 유명 가수 정도로 인식될지 모르겠지만, 80년대 중반 그의 인기는 가히 전세계를 석권하는 수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든 지 라디오를 틀면 그의 「Thriller」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환상적인 노래가 흘러나오고, 길거리나 카페 등 어느 곳을 가도 그의 음악 일색이었으며 반짝거리는 재킷과 흰장갑을 간체 문워크(Moon walk) 춤을 추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모습은 많은 이들을 열광시켰다.

그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물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지만, 독특한 외모와 기이한 행보가 한 몫을 했던 것 같다. 특히 백인을 지향하는 그의 외모의 변화는 최근 미 NBC 방송에서 그의 얼굴 변천사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을 정도로 끊임없는 화제가 되고 있다. 실제 그의 앨범 재킷을 보면, 「잭슨 five」 시절 크고 뭉툭했던 코와 흑인 특유의 두툽한 입술은 간데 없고 80년대의 잭슨은 조각같은 비너스의 코와 가름한 입술, 바람결에 날라리는 동양스러운 이미지의 머릿결을 가진 영락없는 백인의 모습이다. 그 중에서도 그의 백옥같은 하얀 피부색은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백인을 동경해서 표백 약품과 피부 박피술로 얼굴을 희게 바꿨다는 세간의 입방아에 대해서 잭슨은 자신이 백반증 환자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반증(vitiligo)은 인구의 약 1% 정도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색소질환이다. 피부 표피에 있는 색소세포인 멜라닌 세포가 없어지면서 탈색반으로 나타난다. 백인처럼 원래 피부색이 하얀 경우 백반증 병변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나라 사람이나 마이클 잭슨과 같은 흑인에서는 미용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특히 얼굴에 병변이 있는 경우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치료는 주변 색소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색소침착을 가져오는 것에



목적이 있다. 먹는 약, 바르는 약, 광선 치료, 표피이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tacrolimus」라는 면역조절제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남아있는 정상피부를 탈색시켜서 아예 백반증 피부로 모두 바꾸어 버릴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에 잘 시도 되지는 않지만 앞에서 말한 치료 방법에 반응하지 않고 백반증 병변이 전체 피부면적의 50% 이상으로 광범위한 경우가 해당이 된다. 아마

도 잭슨의 경우는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 MBEH(monobenzyl ether of hydroquinone)라는 phenol 유도체를 사용하여 탈색을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 나라에서도 백반증으로 얼룩덜룩해 보였던 환자의 얼굴을 이 약품을 사용하여 전체를 흰 얼굴로 바꿔 만족스러운 미용적 결과를 얻었다는 예가 보고된 바 있다. 실제 마이클 잭슨이 백반증 환자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평소 아름다움의 기준을 다분히 백인의

입장에서 생각한 잭슨의 욕망이 이와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되었을 수 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성형수술의 후유증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마이클 잭슨의 모습을 외신에서 접할 수 있었다. 원했던 하얀 피부를 얻는 대신 그는 햇빛을 피하고 향시 모자를 써야 하며 피부암의 발생을 염려하고 있을 것이다. 과거 팝의 황제라 불렸던 그의 화려한 모습은 오간데 없고, 너무나 부자연스러워 안쓰럽기까지 한 그의 최근 모습은 너도 나도 성형미인을 외치는 요즘에 경종을 울리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듯하다.

강 희 영 교수 / 피부과학교실



눈에 관한 상식



시력표 가장 위의 것(0.1)도 안 보이면 시력이 「마이너스」다?

시력을 표현할 때 정해진 약속이 있습니다. 1.0, 0.8, ... 0.1, ... 0.02, ... 안전수동(눈 앞의 손바닥 움직임 정도를 겨우 보는 것), 광각각여부(빛을 느낄 수 있는 가를 물을 정도로 최악의 시력) 등으로 표시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오목렌즈(근시안경)는 「- : 마이너스」로, 볼록렌즈(돋보기)는 「+ : 플러스」로 표시합니다. 안경렌즈를 표현하는 정해진 약속이지요. 시력표 가장 위의 것(대개 0.1)도 안 보인다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시력은 0.02쯤 되는 경우이고 근시라서, 마이너스 렌즈, 즉 오목렌즈(근시안경)가 필요합니다. 언뜻 복잡하니 오해할 수 있겠지만, 시력 0.9 약간의 근시 환자도 본인이 안경을 끼고 싶다면 역시 얇지만 마이너스 안경이 필요합니다.

<정답 : x>

어린이는 안경을 낄수록 눈이 더 나빠진다?

성장하는 어린이는 근시의 경우 대부분 근시숫수가 성장기에 점차 증가합니다. 안경은 잘 보이게 해주는 도구일 뿐 근시를 진행시키거나 반대로 막지도 못합니다. 안경을 억지로 안 끼우고 방관한다면 안 보이는 불편은 물론, 일부의 경우 시력발달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정답 : x>

다래끼는 눈병처럼 전염된다?

다래끼는 원래 있는 눈꺼풀의 피지선 등에 세균 감염을 비롯한 여러 원인으로 염증이 생겨 둥글게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래끼 속에는 고름, 지방물질 등이 차 있으며 개개인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눈병(유행성각결막염)처럼 전염되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답 : x>

안구이식을 위해 안구기증을 받는다?

안구 전체의 「안구이식」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각막(검은 눈동자)에 생긴 혼탁으로 시력장애가 있는 환자에 한하여, 병든 각막을 도려내고 건강한 각막을 이식해주면 시력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안구 전체를 기증 받되, 수술과정에서는 안구에서 각막만을 떼어내어 환자에게 「각막이식술」을 시행합니다.

<정답 : x>

문 상 호 교수 / 안과학교실



박애병원

지역의료에 매진한 지난 반세기

환자를 위한 병원, 편안하고 따뜻한 사랑이 있는 박애병원은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이 지역 최초의 종합병원이다. 1957년, 당시만 해도 의료기관이 전무한 평택에 박애의원을 개설하여 지역의료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 1987년 10월 종합병원으로 승격하였고, 1995년에는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박애의료재단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박애병원은 지난 46년간 평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료 발전에 힘써 왔으며 인근 충남 예산군, 당진군, 서산시, 천원군의 의료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의술 및 의료장비를 지원하면서 계속적으로 의료수혜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방의원 개설로 업그레이드

박애병원은 현재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180개 병상과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마취과, 성형외과 등 13개 진료과목을 개설하여 우수한 의료진들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역최초로 전신 CT촬영기, MRI(자기공명영상장치), PACS(영상저장 전달시스템)를 도입하였고 특히 MIS(종합의료정보시스템) 설치 가동으로 화상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2차 및 3차 진료의뢰 및 지원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으로 박애병원은 중증환자에게 실시간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의 대기시간 단축으로 인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2002년도에는 박애한방의원을 개설하여 양한방 협진체계를 이루었고, 중국 남경 중의대학과 협력을 체결하여 한방 분야에서 뛰어난 의료자문을 얻음으로써 양방과 한방 모두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지역의료기관의 이상적 모델로서 위상 정립

지역유일의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박애병원은 혈액원 운영, 산업보건연구소 개설 등 각종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지역사회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산업보건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 보건관리대행, 채용건강진단 및 분석실험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다방면에서 지역의료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박애병원은 무의촌 의료봉사, 자궁암 조기진단, 성인병예방, 당뇨 조기무료진단, 국민자가정 평생무료진단, 새마을 부녀회원가정 감동진료 등의 헌신적인 의료봉사와 국민자가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한국천주교회에도 봉사활동을 벌이는 등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을 뻗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병원이다. 1999년 12월에는 아주대학교병원과 협력병원을 체결하여 경기 남부지역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행보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의료업계의 친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2002년 3월 아주대병원에서 있었던 친절, 서비스 아카데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앞으로는 의료진의 기술력 뿐만이 아닌 친절 부문에 있어서도 한 차원 높아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상 한 걸음 앞서가며 미래지향적인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가는 박애병원을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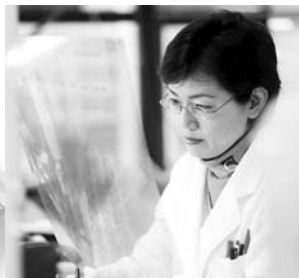
김 영 배 팀장 / QITM

최고의 의학명문 아주대학교의료를 여러분이 키웁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을 위한 자리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조성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의력이 있는 의과대학, 질병 연구와 치료의 흐름을 선도하고자 하는 저희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신설되는 교육·연구동에는 첨단 연구시설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정보 교류와 협력, 시설의 공유를 통해 역량을 극대화하여 아주대학교의료원 연구의 중심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모금 현황

▶▶총계

구분	회원수	약정액	기부총액
월간	6명	4,372,410원	18,702,210원
누계	319명	1,057,480,531원	960,039,331원

성명	약정액	의료원과 관계
김연정	300,000	의무기록팀
박상희	500,000	원무팀
정계영	500,000	원무팀
정해근	90,000	인사복지팀
최경숙	2,000,000	의과학연구소 내분비학연구실 교수
황경애	500,000	원무팀
교직원 분납분	17,330,000	(교직원 급여 공제)
의과대학 학생회	482,410	의대 대동제 주점 수익금

■ 우리 모두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의학발전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의료기기,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도 좋은 후원입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 지로납입 전화신청 031-219-4000
- 자동이체 거래은행 신청 후 후원회에 전화통보
- 무통장 입금 거래은행 예금주 : 아주대학교의료원
- 제일은행 692-20-166907
- 한미은행 542-00896-248
- 농협 116-01-060243
- 국민은행 593501-01-082841
- 우리은행 177-089499-13-102

(가나다순)
2003.8.27~2003.9.17



게시판

아주난청센터, 제1회 인공달팽이관 환아 및 가족 캠프 개최



아주대학교병원 아주난청센터가 9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아주대학교병원 잔디밭에서 「제1회 인공달팽이관 환아 및 가족 캠프」를 가졌다.

이번 캠프는 인공달팽이관이식술 즉, 선천적으로 청력을 완전히 소실한 환아에게 인공달팽이관을 삽입하여 청력을 회복하는 수술을 받은 환아와 가족, 의료진 등 약 130여명이 함께 어우러져 게임, 레크레이션, 미팅시간 등을 통해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즐거운 한 때를 가졌다.

아주난청센터는 작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인공달팽이관이식술을 성공한데 이어 현재까지 34례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전립선 건강의 날, 무료건강강좌 안내

비뇨기과는 10월10일 금요일 오후 3시 별관 대강당에서 전립선 건강의 날 무료 건강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건강강좌는 대한 비뇨기학회에서 정한 전립선 건강의 날(10월 첫째주 일요일)을 맞아 실시하는 것으로, 비뇨기과 김세중 교수가 전립선질환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비뇨기과학회는 10월5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올림픽공원 만남의 광장에서 전립선 건강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셔틀버스 운행 노선 (운행간격 : 20분)

병원 → 아주대 입구 (우리은행) → 미소지움아파트 → 동수원사거리 삼성생명 → 동수원사거리 조흥은행 → 호텔캐슬 건너편 이화약국 → 아주대 삼거리 → 국립지리원(팔각정 갈비 옆) → 병원

클릭!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www.ajoumc.or.kr

전문클리닉 진료시간표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4310	강신영	5818		월	수부 및 상지외과	
	박해심	5902	수		류마티스 관절염, 무부스	
	남동호	5902		화	류마티스 관절염, 무부스	
	서창희	5818	월, 화	화, 수, 금	류마티스 관절염, 무부스, 강직성 척추염, 만성염 관절염, 스킨 중추근, 혈관염 및 자가면역질환에 동반된 관절염	
	민병현	5543		수	슬관절 및 견관절외과	
	전장훈	5542	화		척추외과	
	원예연	5542	월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수부 및 상지외과	
	김현정	5543	수		발목 및 발의 질환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유전학	김현주	5903	화, 목	수	각종 유전질환, 유전성 암질환	
	김현주	5903	화, 목	수	유전상담	
통증	김찬	5897	월, 수, 금		삼차신경통, 다반통, 수족냉증, 대상포진후 신경통	
	한경림	5897	화, 목, 토	수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두통, 교감신경허약증	
알반전	5897	5897	월, 화, 목, 금	수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등 알삼신증 기타	
	유방	박희봉	4743	월, 목*	유방질환	★
클리닉	정용식	4743	화, 수, 금		유방질환 및 갑상선 질환	★
	4744				*은 밤모름 시술만 시행	
학습 및 발달	신운미	5814		수	소아·청소년 정신과, 발달장애	
	조선미	5814	금, 토	화, 금	심리검사 프로그램	

진료과	전문클리닉명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비고
소화기	간암클리닉	조성원	5969	월, 화, 목		
		이기명	5963	수, 토	월	
순환기	심부전클리닉	최병일	5974	월		
		장혁재	5975	목		
호흡기	여행자 예방접종클리닉	최영화	4730	목	월, 수	
		4730				
알레르기	벌독(곤충독)알레르기클리닉	박해심	5905	월, 금		
		남동호	5905	화, 토	목	
정신과	공황장애 인지행동치료클리닉	임기영	5810	화	목(19:00~21:00)	
		5814				
피부과	안면색소클리닉	강희영	5914	월, 수, 목	목(레이저치료)	
		5917				
흉부외과	모발클리닉	윤경한	5914	화, 금	화, 금(레이저치료)	
		5917				
흉부외과	하지정맥류클리닉	최호	5752	화, 목	화	
		5752				
신경외과	뇌졸중 혈관내수술클리닉	신용삼	5664	수		
		김선웅	5858			
성형외과	구순구개열클리닉	박명철	5611	수		
		5614				
안면윤곽	미용클리닉	정재호	5612	화, 목	금	
		5614				
산부인과	불임클리닉	황경주	5643	월, 수, 금	월, 금	
		김미란	5643	화, 목, 토	화, 목	
안과	콘택트렌즈클리닉	문상호	5671		금(1주, 3주)	
		5673				
안과	움직이는 의안클리닉	문상호	5671		금(2주, 4주)	
		5673				
비뇨기과	요실금클리닉	최종보	5587	화, 금	수	
		5585				
비뇨기과	야뇨증클리닉	김영수	5586	수	금	
		5585				
가정의학과	비만클리닉	김병택	5957	월, 수, 목	월, 금	
		5959				
치과	인공치아 이식클리닉	황병남	5869	화, 목		
		5869				
치과	턱관절장애클리닉	고석민	5869	화	수	
		5869				
치과	턱관절장애클리닉	황병남	5957	금	월	
		5869				

아주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2003년 10월1일 현재)

외래진료 접수시간

* 평 일 오전 8:00~오후 4:00
* 토요일 오전 8:00~오전 11:30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화기	조성원	5969	월, 화, 목		간질환		
	김진홍	5962	화, 금	수	위장관치료내시경, 웨·담도질환		
	황기백	5963	목	화, 목	위장질환		
	이광재	5963	수, 금	월	위장질환, 위장관 기능장애		
	유병무	5962	월, 수	금	웨·담도질환, 치료내시경		
	이기명	5963	수, 토	월	위장관질환		
	정재연	5962	금	화, 수, 목	간질환		
	김도현			목	소화기질환	★	
	송현주			월	소화기질환	★	
	이은희			금	소화기질환	★	
순환기	최병일	5974	월, 화, 수		심장혈관질환		
	탁승재	5973	화, 수	수	관상동맥질환(협상, 심근경색), 심장혈관중재시술		
	신준한	5975	목	화	심장혈관질환, 심장관리질환, 고혈압, 심초음파	★	
	황고승	5975	월, 목	월	부정맥, 전기생리검사, 전극도자극술, 인공심박동기	★	
	윤영호	5975		화, 목, 금	관상동맥질환(협상, 심근경색), 심장혈관중재시술		
	최소연	5975	금	수, 금	관상동맥질환(협상, 심근경색), 심장혈관중재시술		
	장혁재	5975	금	월, 목	심장질환, 고혈압, 심부전	★	
	최태영	5975		목	고혈압, 심장질환		
	최병주	5973	토		고혈압, 심장질환	★	
	일반진료					★	
호흡기	황성철	5967	월, 화, 수	목	폐결핵, 감염성질환, 폐암	★	
	박광주	5967	해외연수중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중환자치료학		
	최영화	4731	목	월, 수	폐암,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윤영호	5968		월, 수	폐암,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	
	신승수	5968	수, 토	월, 화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	
	일반진료	5968	목	금	호흡기질환	★	
	내분비	이관우	5956	월, 수, 금	목	당뇨질환 및 내분비대사질환	
		정윤식	5961	화, 목	월, 금	골다공증질환 및 내분비대사질환	
		김대중	5961	월, 목	화, 수	당뇨병, 비만, 갑상선질환	
		일반진료	5961	토	월	내분비대사질환	
신장	김홍수	4741	월, 수, 금	수, 금	만성신부전증,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신규태	5971	화, 목	월	신장이식, 고혈압, 사구체신염		
	김명성	5971	토	수	신장질환	★	
	일반진료	5971		화		★	
종양	김효철	5992	월, 수, 금		림프종, 골수종, 백혈병,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임호영	5991	월, 화, 목		식도·위장·대장·직장암, 각종 고형암		
	최진희	5991	수, 금	월	두경부·식도·폐암, 유방암, 각종 고형암		
	박준성	5991	화, 목	화, 수, 목	혈액질환, 종양		
임상	박해심	5905	월, 수, 금	수	천식, 알레르기질환, 류마티스 무부스		
	남동호	5905	화, 토	화, 목	천식, 알레르기·류마티스질환, 무부스, 통풍		
	서창희	5818	월, 화*	화, 수, 금*	류마티스 관절염, 무부스, 강직성 척추염, 만성염 관절염, 스킨 중추근, 혈관염 및 자가면역질환에 동반된 관절염		
	최정희	5905	목	화, 금	천식, 알레르기·류마티스질환, 무부스, 통풍		
내과	일반진료			월	천식, 알레르기·류마티스질환, 무부스, 통풍		
	5902			월	*는 관점센터 진료		
내과	일반	5970	월~토	월~금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화기	홍창호	5620		수, 금	청소년 의학, 정장과 발달	
	김성환	5616	화, 목, 금	수	신경계질환, 간질환	
	배기수	5623	월, 화, 금	수	신장학	
	이수영	5623	월, 수, 목	수	알레르기, 호흡기학	
	박문성	5617	월	화, 금	미숙아, 신생아학	
	정조영	5621	수	월, 목	심장질환(대, 수, 금)오전은 심장 초음파 가능	
	황진순	5621	수, 금	수	소아내분비 질환	
	박준은	5621	수	월, 목	소아혈액·종양	
	일반진료			월-토	월-금	
	5619					
신경과	허균	5659	화, 수	월, 목	간질, 치매, 뇌혈관질환	
	주인수	5653	화, 목	월, 금	말초신경질환, 근육질환	
	방오영	5657	월, 금	화,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치매	
	이필후	5657	월, 토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간질	
	일반진료	5657	수, 목, 금	화, 목, 금		
정신	정영기	5811	월, 수, 금	화	정신분열증, 사회공포증, 불안장애, 스트레스장애	
	임기영	5810	화	수, 금	공황장애, 강박장애, 불안 및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이영문	5810	목, 토	월, 목	정신분열의 재활치료	
	노재성	5811	수, 목	월, 금	우울증 및 신경성 신체장애	
	신운미	5812	월, 금	화, 수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틱, 자폐장애	
피부과	이성낙	5912	(예약)		베체트병, 화학박피술	
	이은소	5913	월, 화, 목	(예약), 수	건선, 여드름, 베체트병(화·레이저치료)	
	윤경한	5914	금	월, 화, 목(예약)	모발질환, 알레르기·습진, (금: 레이저치료)	★
	김희영	5914	월, 수, 목	월, (예약)	백반, 무좀, 접촉피부염, 색소질환 (목: 레이저치료)	
	레이저치료			화, 목, 금	예약에 의함	
외과	김명욱	5761	월, 수	수	난치성 소화기(위, 담도, 췌장)질환	
	조용관	5756	화	화, 수	식도, 위장질환	
	소의영	5756	수, 금		내분비질환, 두경부 질환	
	홍정	5754	화, 목		소아외과 질환(항, 종양, 탈장, 배변기능장애)	
	영희정	5753	금	화, 금	간담, 간내결석, 간이식	
과	서광욱	5753	월(재진)	월(초진),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박희봉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오창권	5756	월, 금	월, 금	장기이식, 소화기질환	★
	김옥환	5756	화, 목, 토		간·담도·췌장 질환	
	한상욱	5754	수, 금	월	위·십이지장 질환	
정음	이국중	5753	목		외상외과, 소화기외과	
	정용식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갑상선 질환	
	김정은	4744	목, 토		담도계질환, 복강경수술	
운택일		수		내분비 질환		

토요일은 특진1명, 일반 1명의 의사가 주마다 교대로 진료를 합니다.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031) 219-5114
219-6114
- F A 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외국인안내 : (031) 219-5546
- 응급의료센터 : (031) 219-60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과명 필수진료	의사명	진료일 진료시간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흉부 외과	이철주	5749	금	금	성인심장외과	
	소동문	5750	월, 수	월	소아심장외과, 혈관외과	
	최 호	5750	화, 목	화	폐·식도외과, 다한증, 하지정맥류	
	김정태	5750		수, 금	심장외과, 일반흉부질환	★
	강준규	5750		화, 목	심장외과, 일반흉부질환	★
일반진료	5750	토		심장외과, 일반흉부질환	★	
정형외 과	민병현	5543	월, 금(초진)	수*	슬관절 및 견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목, 금		척추외과, 측만증, 최소침습수술	
	윌예연	5542	월, 수	목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월, 화	수부 및 상지외과, 미세수술외과, 사지혈관신경외과	
	김현정	5542	수	화, 목	발목 및 발의 질환	
	조재호	5542	금	수	소아정형(변형교정, 키늘리기 수술), 외상	
일반진료	5542	화, 수, 토	목, 금	*는 관절염센터 진료		
신경외 과	조경기	5661	월, 목	목	뇌종양, 척추질환	
	조기홍	5662	수, 목	월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윤수한	5662	화, 금	화	소아신경외과, 뇌종양	
	안영환	5662	화, 금	금	안면경련증, 삼차신경통, 방사선수술, 뇌종양	
	신용삼	5663	월, 수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중재적 치료	
	김세혁	5663	토	수, 금	뇌종양, 외상	
성형외 과	박명철	5611	월, 수, 금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정재호	5612	화, 목	금	악안면부성형, 미용성형	
	박동하			월, 수, 목	수부성형, 미용성형	
	황인석	5612	토	화	미용성형	
일반진료		월~토	월~금			
산부인 과	오기석	5595	화, 목, 금		부인과 질환	
	유희석	5594	화, 목	월	부인암	
	김행수	5593	해외연수중		고위험산모, 조음과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장기홍	5594	월, 수	화, 금	부인암, 복강경수술	
	양정인	5593	원, 인	월, 수, 목, 금	고위험산모, 조음과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황경주	5643	월, 수, 금	월, 금	불임 및 복강경	
	이정필	5595	월, 토	수, 목	부인암, 산과, 부인과	
	김미란	5643	화, 목, 토	화, 목	불임, 산과, 부인과	
일반진료		월-토	월, 수, 목, 금			
안과	유호민	5669	월, 수, 금	원(예약), 인(예약)	망막, 초자체, 백내장	
	안재홍	5670	월, 금	화	각막, 녹내장, 백내장, 굴절수술	
	장윤희	5672	토	월, 목	사시, 소아안과	
	문상호	5671	화, 토	금	안상형, 백내장, 렌즈클리닉	
	일반진료	5671	월-토	월, 금		
이비인 후과	박기현	5742	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문성균	5742	화(한청클리닉)	월, 목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정연훈	5742	목(어지럼증)	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김철호	5746	수, 목, 음성클리닉	월	두경부종양, 음성장애, 기관·식도 질환	
	김현준	5746	토	화, 수	비염, 부비동염, 후각장애	
	최호석	5742	월, 화, 토		난청, 부비동염	★
일반진료		월-토	월-금			

진료과명 필수진료	의사명	진료일 진료시간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비뇨 기과	김영수	5586	수	금	소아비뇨, 여성 방광염	
	김세중	5587	월, 화	목	비뇨기 종양(암)	
	안현수	5588	목	월, 화	요로결석, 불임	
	최종보	5587	화, 금	수	배뇨장애, 요실금, 남성과학(성기능장애)	
	최민규		토	화, 목	요로결석, 남성과학	
일반진료		월, 수, 목, 금, 토	월, 수, 금			
재활 의학과	이일영	5795	월, 수, 금		척수손상	
	나은우	5796	화, 목	목, 금	뇌졸중, 뇌손상, 절단자 재활	
	임신영	6440	토	월, 화, 수	소아재활	
일반진료		화	목			
지반사 과	김성용	5854	월, 화, 목		뇌혈관질환 중재적 치료	
	원재환	5863		월, 수, 금	혈관질환(중재적 치료, 예방관리, 재활) 혈관질환	
	5823	일반진료	5145	수, 금, 토	화, 목	
치방사 과	전미선	5884	월-토	월-금	종 양(부인과, 유방암, 소화기암)	
	오영택	5884	월-토	월-금	종 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강승희	5884	월-토	월-금	종 양(뇌종양, 육종, 정위방사선치료)	
혈액 과	윤서남	5947	월-토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윤준기	5947	월-토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선암 의학과	이경중	5645		화		
	박재범	5606		목		
일반진료	5644	토	월-금			
가정 의학과	김광민	5958	월, 수, 금	화	만성피로, 노화관리, 남성갱년기	
	박새별	5957	화, 금	수, 목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김범택	5957	월, 수, 목	월, 금	비만, 골다공증	
	신상호	5958	목		비만	
	손준천	5958	토	수	갱년기, 금연	
	정유지	5958	화	화		
일반진료		월-금	월-금			
치과	황병남	5869	화*, 목, 금	월, 화, 목*	인공치아(이식, 턱관절장애)	
	고석민	5869	월, 화, 금*	월*, 수, 금*	인공치아보철, 틀니	
	이정근	5869	월, 화*, 수, 목*	화*, 수*, 목*	악안면기형, 악안면외상, 잇몸질환	★
일반진료		토	월-금	재진환자만 가능	★	
					*는 별도 예약 ※ 토요일은 특진과수가 교대로 진료합니다.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는 특수진료입니다.
3. *는 세부전공만 진료합니다.
4. **원, 인**은 추가비용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